

츠즈키보가 방적 전문, 직포 전문 공장으로 재편성

회사갱생법(會社更生法)에 의하여 재건하기 시작한 츠즈키보(都築紡)는 공장을 재편성하는 방향을 밝혔다. 일본의 서부에 있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出雲) 공장은 면 방적 전문 공장으로 시고쿠(四國)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고치현(高知縣)의 고치 공장은 합섬 방적 전문으로, 규슈(九州) 동북 지역에 있는 오이다현(大分縣)의 오이다 공장은 직포 전문 공장으로 다시 편성키로 되었다.

이 회사는 2005년 3월에 관계인 결의집회(關係人決議集會)에서 갱생 계획을 인가받아 사업 관리인을 파견하고 있는 모건스탠리 증권 회사 그룹이 2005년 6월에 채무를 일괄 변상하여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 시점에서 츠즈키보는 이 그룹의 자회사로 되고 공장 재편도 6월말로 끝냈다.

이즈모 공장에는 현재 링 정방 268대(11만 1,968추), OE 정방기 6대(192드럼), 에어젯 직기 116대가 있었는데, 직기 38대는 오이다 공장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휴대(休台)한다. 이즈모 공장에는 1월말 현재 종업원이 272명 있었다.

오이다 공장에는 정방기 84대, 직기 174대 있었는데, 정방기는 모두 휴대하고 직기는 이즈모 공장에서 옮겨온 것까지 합쳐서 212대로 되었다. 이 공장의 종업원은 130명 있었다.

고치 공장은 링 정방기 130대(5만 2천추)가 있었으며, 종업원은 133명

있었다. 후쿠이현(福井縣)에 있는 오오노(大野) 공장은 2005년 5월말로서 공장을 휴지(休止)하였다. 이 공장은 주로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사를 주로 임방하고 있었는데, 수입은 연간 4억엔으로까지 줄어 채산이 안맞게 되어 공장을 휴지하면서 임방도 폐업하였다. 이 공장의 면 코머사와 면을 쉬스(sheath)로 하는 코어 얀(core yarn)의 생산 시설 가운데 일부는 이즈모 공장으로 옮겨 계속 돌리게 된다. 또한 쉬스를 합섬으로 한 코어 얀의 생산 시설 일부는 합섬방 전문이 된 고치 공장으로 옮김으로써 고치 공장은 기존 시설과 함께 계속 가동하게 되었다. ♣